

# 전남도교육청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3일, 160여일간 진행했던 '2017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하고,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 민선 교육감의 공약이행 정도를 종합 평가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3월 6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 완료율,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종합평가결과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제 75점 이상이면 SA등급이다. 65점 이상이면 A등급, 55점 이상이면 B등급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종합평가 결과 A등급이었으나, 올해에는 한단계 상승하여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공약이행완료 분야와 목표달성분야에서 각각 SA등급을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총 25개의 공약 중 완료 1개(전년도 1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8개(전년도 1개), 정산 추진

6개(전년도 23개)로 확인됐다. 이는 장만재 교육감의 각종 공약사항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내실을 다진 결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추진된 공약을 보면 무상교육 확대, 농어촌학교 통학문제 해결, 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 배치, 폭력·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안학교 활성화, 무지개학교 확산 등이다.

김영중 정책기획관은 "이번 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교육감 공약사항이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현장에서 교실의 변화와 학생 중심 교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준 교육공공체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도 공약사항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인 점을 감안해 모든 공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남 교육 소식



### '뛰go! 넘go! 즐기 go!'

#### 합평손블초, 음악즐거움대회 우수 수상

손블초등학교(교장 박소영)는 6월 24일 여수에서 실시된 제3회 전라남도합평장대 줄넘기대회에 본교교육감 11명이 출전하여 2인 반강이 뛰기와 스피드 이중뛰기 부문에서 금상 3명, 은상 2명, 동상 6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손블초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60분 운동(756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전교생이 줄넘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 활동으로 음악즐거움팀을 결성해 '뛰go! 넘go! 즐기 go!'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행복교육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상한 6학년 이지영 학생은 "음악만큼이나 뛰기는 마음으로도 열심히 연습한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어 더욱더 보람을 느끼며 연습할 수 있었고 특히 지도교사인 사신인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과 팀들 때마다 위로와 수고 덕분에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소영 교장은 "학생들의 활력진동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금상수상하는 쾌거에 비해 체력은 약한 우리 학생들의 운동 습관을 높이기 위한 음악즐거움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즐겁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형성시킬 기대를 본다."고 말했다.

### 회송동면초, 4-H 아카데미 운영

회송동면초등학교(교장 양은하)는 전남 학교 4-H 아카데미 활동으로, 농촌의 중요성, 지도력 함양, 식물이 자라는 원리를 알리고 식물심기 체험을 하는 등 다양 교육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6월 30일 교내에서 운영했다. 학교 4-H 아카데미는 학교 4-H 자원확대와 학생 회원의 4-H 기초 소양 배양으로 지역·전남·대한민국을 이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전라남도 4-H 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활동을 통해 4-H에 대한 이해와 농성을 함양하고 진취적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동면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아카데미는 먼저 4-H 이념, 역사 이해를 통하여 자세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했으며 식물이 자라는 원리 및 식물의 중요성과 식물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 등을 아는 이론 교육으로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동면초등학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식물과 친구가 되어 가꾸어 보면서 자연과 친해짐 수 있도록 다육식물과 다육식을 관리방법에 대한 공부하고 직접 자신의 키를 다육화분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다육화분에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새긴 앤티켓 말도 직접 만들어 '나만의 화분'을 장식하기도 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친구가 된 다육화분을 가꾸며 자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자신이 살아간다고 있는 타인인 농촌의 중요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즐겁게 활동을 마무리했다.



▲장만재 전남도 교육감



## 여수여도중, 미래를 향한 질주!

### 21세기 인재 양성 요람 자리매김

등롱길에 비발디 시계 여를 제1야장을 들며 스토리텔링에 전시된 명화의 향기에 꼭 빠져든다.

미항 여수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큰 미래를 위해 질주하는 대한민국 명문사학 여도중학교(교장 윤석권)가 있다. 지난 1984년 개교 이래 8천 1백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21세기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지난 2010년 교육부로부터 16억 원을 지원받아 30여년 노후화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 했다. 쾌적한 학습 환경 속에서 문화적 감성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고 맡겨 미래를 펼 수 있는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여도중의 창의성 교육, 스포츠클럽 활동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감당하고 인정할 정도로 벤치마킹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교사 신진학교 탐방으로 교과별 실력과 전문성을 키워 여도중의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다.

특히 여도중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과학, 기술, 예술, 수학의 각 영역을 융합하는 발명교육을 통해 '자율형 창의영학교'로서 비전을 이뤄가고 있어 눈에 띈다. 지난 2016년에는 전국대회 70명, 전남대회 92명, 여수시대회 78명 학생들이 발명의 실력을 발휘해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독서, 긍정적이고 유익한 사고, 자유로운 활동, 현장체험학습에 주안점을 뒀다. 동아리·방과후 연계를 통해 특기와 취미를 신장할 수 있도록 언어영역, R&E 동아리(7개), 스

포츠(6개) 동아리와 방과후학교 36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순천대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7년제 독서 교육 철학사도 멘토링 수업을 하고 있어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다.

상실동아리 10개가 운영되며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 등 30개 교육과정을 연계해 풍부한 감성을 함양한다. 발달한 끼와 감성이 발현되는 여도중은 한해에 갈무리하는 축제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교교육과 관련해 1학년은 학급제임으로 선배와 함께 꽃 찾기, 2학년은 현장직업체험 활동을 직접 나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교과별 특색에 맞춰 교실환경을 구축하고 1교사 1교실의 선진형 교과과정 운영은 남다른 교육성과를 이룩한 수업의 전문성과 완성도가 높아졌다.

특히 영어·수학 과목의 경우, 2개 반을 한 반으로 통합해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눠 본인 실력에 따라 상중하 반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 호응이 높다. 실력이 뒤처진만큼 교사로부터 멘투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의성 발현을 위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자기주도교육인 'purpose driven life', 진로 관련 독서, 체험, 봉사, 직업탐색 활동을 체계화 한 BRAVO(Book of Reading, Adventure, Volunteerism, Occupation)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여도중은 일반 공립학교와 다름없이 한 치 물러설 수 없는 경쟁관계다. 과거와 달리 산단지원금이 없어 귀족학교라는 말은 이미 뇌리 속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최준열 기자 c@

## 몸에 나쁜 것은 하지 말아요

### 강진마량초, 악물(흡연) 오·남용 예방 인형극 관람

마량초등학교(교장 배도원)는 지난 6월 30일(금) 청자극 협동조합(마량초, 대구초, 질량초) 군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교내 미량관에서 '악물(흡연) 오·남용'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악물(흡연) 오·남용 예방 인형극 '백설공주와 백곰뽀뽀 뽀뽀'를 관람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악물(흡연) 오·남용 예방 인형극은 청소년의 흡연, 음주 등 악물 오·남용의 저연령화 현상과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이 참여하는 악물(흡연) 오·남용 예방 인형극을 관람하고, 이를 통해 악물의 폐해와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선택법, 악물 유혹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익혀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익히고 악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했다.

인형극을 관람한 4학년 이모 학생은 "인형극을 통해서 악물(흡연)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알라주어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2학년 김모 학생은 "소 인형을 직접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강사 선생님들이 말을 했는데 너무 웃기고 즐거웠어요."라고 말하며 얼굴에 활짝 웃음을 보였다.

인형극을 함께 관람한 한 선생은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악물(흡연) 예방은 교육의 효과도 높을 것이며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도원 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악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문화 함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교육지원청, 2년 연속 과학탐구실험대회 제때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2017년 전라남도학생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에서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4팀, 장려상 2팀 등 총 13팀이 입상하여 2년 연속 과학탐구실험대회 제때 하였고 밝혔다.

학생과학탐구실험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13팀이 입상하여 과학 최강자를 입증했다. 순천현장초등학교 6학년 허다유, 박하연 학생과(지도교사 현희수) 순천대산중학교 2학년 김우연, 박찬우 학생은(지도교사 신미정) 금상을 수상해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윤종식 순천교육장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순천교육이 빛어낸 결과이자 평소 학생들이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해 열정을 다한 지도교사와 지직초기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준열 기자 c@

**(유) 하나로합정**

방역 (학종소독) / 건물 관리 / 자수료 청소

위생관리용역 (문질/입수청소)

TEL : 106-11324-5222 / H.P : 010-8888-2678

전남 합평동 합평동 영수길 198-1번지

FAX : 106-11323-0036

E-mail : hsb3222@hanmail.net

**대동방역**

방역 / 살균 / 살충

TEL : 106-11324-2931 / H.P : 010-8514-8006

**KPCA**

**영업종목**

**간이상수도청소** : 마물 단위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편선 등

**공간소독**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환경 등

**무인자동살균** : 유치원, 초·중·고·대학구내식당 등 집단 식용 예방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